

계곡물 합부로 마시면 '탈났다'

지리산 천은사 계곡 등 절반이상 대장균 기준치 초과

국립공원공단 97곳 측정

시원한 계곡에서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은 계곡물을 합부로 마셔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 계곡의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총 대장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Table with 3 columns: 계곡명, 계곡명, 총대장균수. Lists various streams and their E. coli counts.

아산 각 3곳 ▲지리산(북부)·계룡산 각 2곳 ▲내장산·월출산·변산반도 각 1곳 등의 순이었다.

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40%를 차지하는 사유지에서 경작을 하면서 오염물질을 계곡에 흘러보내고 있고, 탐방객들이 계곡에서 피서를 하다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계곡물의 총 대장균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계곡물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모든 지점이 1ℓ 당 1mg 이하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계곡물을 그대로 마실 경우 건강에 해로운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면서 "피서기간 동안 오물투기·불법취사·야영·수영 등 계곡물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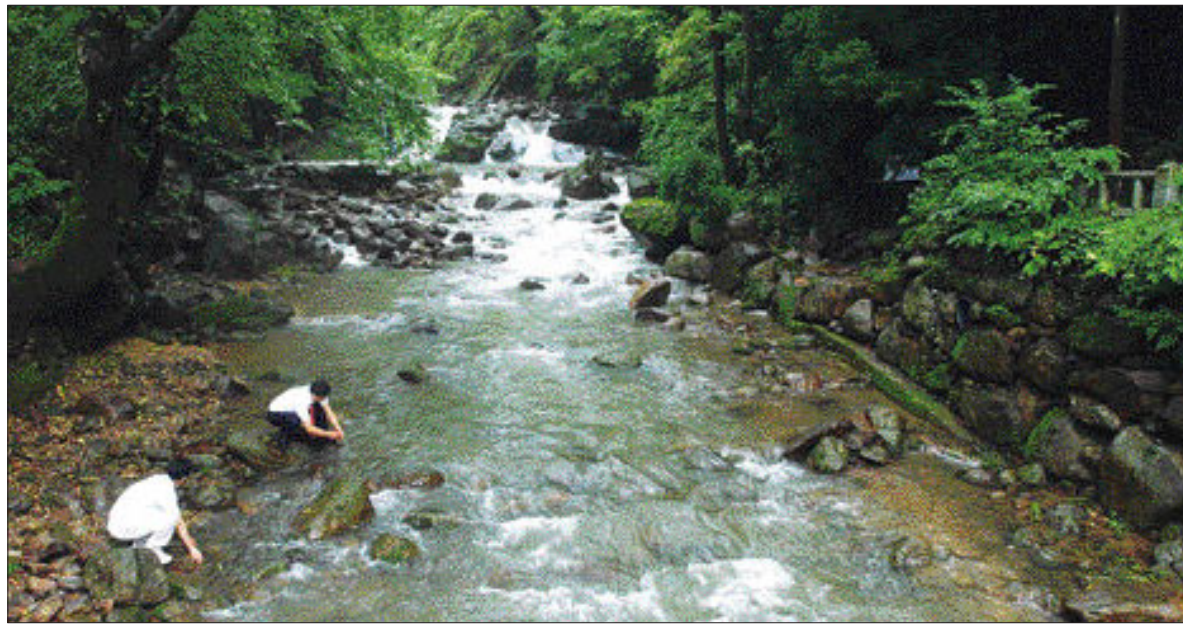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은 17일 지리산과 경주, 3개 해상공원(다도해·한려·태안)을 제외한 전국 15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 97개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화엄계곡의 총 대장균 수 79MPN (Most Probable Number·시료 100ml 당 대장균 수)으로 수질환경기준(1등급)인 50MPN을 초과했다. 총 대장균 수의 21.5%인 17MPN은 포유류의 대변 등에서 검출되는 '분원성 대장균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천은계곡도 총 대장균 수가 56MPN으로 기준치보다 높았고,

월출산국립공원 도갑계곡에서는 72 MPN이 검출됐다. 이들 지역의 '분원성 대장균군' 수는 각각 21MPN과 19 MPN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97개 지점 중 57개 지점(58.8%)이 기준치를 초과한 총 대장균군으로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별 총 대장균군 기준 초과지점별 총 대장균 수를 보면 지리산(남부)·주왕산·치악산·소백산 각 4곳 ▲덕유산·북한산·가



지리산 천은 계곡 등 국립공원내 계곡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군이 검출돼 음용수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카콜라 광주공장 제품생산 전면중단

용기 안정성 보완 등 '독극물 콜라' 진화 고심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주)가 독극물 과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광주공장의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한 것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이하 회사)은 "독극물 사건과 관련, 용기 안정성 검토 및 PET용기의 뚜껑 패치를 바꾸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17 일 밝혔다.

회사 측은 PET용기의 ▲뚜껑 색깔 변경 ▲재질 강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빨간색의 PET 용기 뚜껑을 다른 색으로 바꿔, 독극물 사고 이후에 생산된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뚜껑 재질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이 같은 결정까지는 앞으로 10여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됐던 PET 소재 코카콜라 병(600ml)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내압(內壓)형'으로 두께는 0.3mm이다.

뚜껑은 '폴리에틸렌'(polyethylene)으로 만들어졌으며, 한가운데의 두께가 2mm, 가장자리는 1.5mm인 오목한 두께로 만들어졌다.

한편, 한국코카콜라 측은 광주와 전남·북 일부 지역에 대한 코카콜라 '디콜'을 시작한 이후인 10일부터 광주·전북 양산동 광주공장의 콜라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고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광주공장 100여명의 직원들이 '리콜' 작업에 투입된다. 수거한 제품 115만 병에 참고에 가득 찬 바깥에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공간도 없어 선불리 생산 재고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경기도 여주공장이 폭우피해까지 보게 돼 안락의 악재가 겹치고 있다"면서 "연휴가 끝나는 대로 리콜된 제품의 분류·품질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둬도, 광주공장의 제품 생산은 독극물 추가 투입 여부와 공병 여부가 확실히 밝혀진 뒤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내 이런 선·후배 가장 싫다. 비호감. 성의도 능력도 없는 부하직원 '비호감' 약속 안 지키고 불성실한 상사. '능력 부족한 부하, 약속 지키지 않는 상사는 싫다.'

지겨운 비 7월 18일 (음 6월 23일) <전국날씨>. Weather forecast map of Korea showing rain in many areas.

농어촌 총각 국내결혼 적극 알선

전남도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 미혼 남성은 지난해 5월 기준 6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0세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치료제 '이레사' 환자동의후 투약 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폐암치료제 '이레사'로 환자를 치료하기 전 이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헌을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들의 아래 사용하도록 국내 의료기관, 의료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논의해야" 사제추위 참여 검사 주장.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제추위 기회추진단 주도자들의 발상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므로 그 발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Real estate ads for '첨단월계공인중개사' and '첨단인근 자연·생선농지'. Includes contact info and details on land and house sales.

Real estate ad for '팜 부동산서비스'. Focuses on villa and apartment sales.

Real estate ad for '금천공인중개사'. Offers services for land and house sales.

Real estate ad for '정원공인중개사'. Focuses on land and house sales.

Real estate ad for '한일지도(주)'. Offers maps and real estate services.

Real estate ad for '에셋코리아 부동산컨설팅·평가·법률사무사'. Provides appraisal and legal services.